

특집

당뇨병

진단



최 동 섭
(고려대 교수)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에는 당질, 단백질 및 지방 등의 3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주식으로 먹는 쌀, 밀가루, 감자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당질은 장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된다. 혈당은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한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혈액속의 혈당이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고 혈액속에 쌓여서 고혈당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대사 질환이다. 당뇨병의 전형적 증세는 고혈당에 의해 발생한다. 즉 혈당이 증가하여 혈액 100ml당 180mg 이상이 되면 신장에서 혈당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는데(노당) 이때 몸속의 수분이 같이 빠져나오므로 소변양이 많아지고(다뇨) 자주 소변을 보게되며, 몸속의 수분이 당과 함께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갈증이 되어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다음). 그리고 혈액속에 당이 많이

있어도 몸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기때문에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나(다식) 체중은 오히려 줄게된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은 첫째 고혈당에 의한 「3다」증세와 함께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섭취한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중 어느 시간이든지 채혈하여 검사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이라 진단할 수 있다.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은 다음, 다뇨, 다식 등의 증세가 급격히 나타나서 진단에 어려움이 없으나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전혀 증세가 없거나 전신쇠약감, 피로감 등의 비특이적 증세만 나타내므로 진단이

노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당뇨병의 증세가 없거나 비특이적 증세만 있는 경우에는 공복시 혈당이 진단에 중요하다. 즉 10시간이상 물의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당이 1주일 이내 기간에 2회 이상 140mg/dl 이면 당뇨병 증세 유무에 상관없이 당뇨병이라 진단할 수 있다. 셋째 공복시 혈당이 115에서 139mg/dl

서는 체중 1kg당 1.75g의 포도당)을 물 300ml에 녹인 설탕물을 5분 이상에 걸쳐서 마시게 하고 마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30분마다 4회 채혈하여 혈당을 측정한다. 이때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설탕물을 마신후 2시간의 혈당이 200mg/dl 이상이면서 그 중간 30분, 60분, 90분에 채혈하여 측정된 혈당이 한번 이상 200 mg/dl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 당뇨병이라 진단할

거대아 출산경험 있는 여성은 발병위험 높아

혈당 검사가 필요하다. 당뇨병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는 같은 사람에서 다시 실시하였을 때 검사를 하기 전에 섭취한 당질의 양, 활동정도, 다른 질환 유무 및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 등에 의해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당뇨병의 진단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나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의 경우 약 25%의 환자에서는 발병시 심한 고혈당과 탈수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급성 합병증에 의해 혼수 상태로 응급실을 찾을 수도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이 처음 발병할 때도 뇌졸중(중풍)이나 심근 경색증 등의 합병증에 의해 평균혈당치가 1,000mg/dl 정도로 올라가면서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하여 의식장애 및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경우에 따라 시력장애, 손발 저림, 비뇨기 감염(방광염 등), 곰팡이 감염(질염 등), 피부 건조감 또는 가려움증 등의 증세로

당뇨병의 증상 3도



40代이후엔 정기적 당뇨병검사 실시 바람직

되지 않거나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족중에 당뇨병이 있는 40세 이상의 성인, 비만증(특히 허리 둘레가 엉덩이 둘레 보다 큰 복부 비만증), 고혈압, 고지혈증(혈액속에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 여자의 경우 임신중에 당뇨병이 있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당 검사로 당

공복시 혈당 140mg/dl 이상이면 당뇨병

인 사람(정상인 115mg/dl 이하)은 당뇨병 진단을 위해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는 적어도 3일간 하루 150g 이상의 당질을 섭취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한 후 10시간내지 16시간 동안 물의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 식사전 공복 상태에서 시행한다. 설탕 75g(소아에

수 있다. 이 검사에서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mg/dl 인 경우에는(정상은 140 mg/dl이하) 「당불내성」이라 부르며 이는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으나 당뇨병의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로 정상인과 당뇨병의 중간에 속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발병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비만과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혈당 검사로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人參, 牡丹皮, 海馬, 杜仲, 阿膠, 桂枝, 仙茅, 菟絲子, 補骨脂,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蓯蓉, 鎖陽, 川續斷, 熟地黃, 覆盆子, 山茱萸,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炮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山藥, 黃芪, 麥冬, 牛膝, 甘草



• 표준소매가격 :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 문의처 : (02)464-0861, 화솔부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원·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2동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製造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491号